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99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5일 2023년 5월 4일 목요일

광주시, 2조원 투입 '5대 신활력 벨트' 조성

침체한 도심에 활력 불어 넣고 시민의 삶 업그레이드
2027년까지 24개 사업 시행…이용인구 연간 3000만명 목표

'밀린 숙제'로 지목됐던 '5+1 현안 사업'을 조기 해결한 민선 8기 광주시가 이번에는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2조원대 규모의 '5대 신활력 벨트'를 조성하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벨트 등 5대 벨트 24개 사업에 2조 384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26년이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는 각 벨트 사업별 주관부서 지정 및 협업팀 구성으로 사업 실행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분기별 사업 점검 및 진단, 협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벨트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는 2026년까지 마한·백제문화와 호남의병 발원지이자 아시아권 문명 공동체인 영산강·황룡강 일원에 역사와 문화·예술, 친환경, 관광·레저 등 익사이팅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 8억 4000만원을 들여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비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도심 바로 옆에 익사이팅 벨트가 조성되면 시민의 쉼과 생활 편익 등이 증대되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3~4급수 수준인 수질 개선과 수변 활동이 가능한 수량 및 단절된 도로 등 접근성 확보 등은 선결 과제로 꼽힌다.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는 억새와 꽃, 물길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와 도보로 문화·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우선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4수원지와 대형 건물 지하수 등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족욕장과 생태힐링 정원, 야간경관, 연결로 확충 등 다양한 편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광주천 주변에 아파트 단지 건축이 증가하고, 전방·일신방직 내 복합쇼핑몰 개발, 상무지구 대표 도서관 신축 등 시민이 몰려드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민 생태힐링 공간 조성을 비롯한 보행·자전거 연결 통로 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천을 상무·동천·광천 등 대규모 주거지가 있는 영산강 합류부~광천 2교, 전방·일신방직, 챔피언스필드 등 스포테인먼트 등을 갖추게 될 광천 2교~천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그리고 광주공원 등 매력적인 문화공간을 갖춘 관광객 중심의 천교~학림교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편의 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송정역과 광주역, 효천역을 거점으로 하는 활력 벨트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우선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사업으로 서남권 대표 관문역으로 떠오른 송정역세권을 직접사업(송정역사 증축, 광장조성 등)과 간접사업(KTX투자선도지구, 장록교 사업 등)으로 나눠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호남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 사업도 눈길을 끈다. 5개 사업에 1조 1286억원이 투입되는데, 핵심은 1조원 안팎이 투입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광주역 일원 50만 ㎡ 부지에 스타트업 창업 밸리 등을 구축하게 된다.

시는 또 광주지역 신생기업 생존율(7년 이내)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21%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광주역 부지 내에 기업혁신성장센터(500억원)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280억원), 복합허브센터(350억원) 등 창업기업 지원 시설 등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효천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벨트' 조성에 나선다. 총 1362억원을 들여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광주실감콘텐츠 큐브 운영,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공유거점센터 구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5대 신활력 벨트

▲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
- 역사·문화·관광·레저 공존하는 공간

▲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 보행·자전거 연결통로 확대 문화·쇼핑

▲ 송정역 활력벨트
-송정역세권·KTX 투자선도지구 육성

▲ 광주역 창업벨트
- 스타트업 창업 밸리 구축

▲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 벨트
-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등 조성

비상호출시스템 확대…시민은 "잘 몰라요" ▶6면
북스 - '일본 도자기 여행' ▶17면
손흥민의 토트넘 이강인 영입 나선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일은 어린이날…우리들 세상" 3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전남대학교 잔디밭에서 야외활동 시간에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어 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어린이날 연휴 비 30~100㎜ 내린다

광주·전남 전역 6일 새벽까지
해안에는 초속 20m 강한 바람

광주·전남 전역에 어린이날 연휴기간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4일 오전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돼 6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평균 30~100㎜의 비가 내리겠지만 일부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50~150㎜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밤~5일 새벽, 5일 밤~6일 새벽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또 4일부터 전남 해안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현재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완도·해남·장흥·강진·보성·구례·곡성·고흥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또 5일까지 기온도 낮아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4일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되고, 5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16~18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분포해 평년보다 2~5도 가량 낮겠다.

이로 인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단위로 주말 나들이를 계획했던 학부모들은 연일 내리는 비 소식에 예약했던 캠핑장을 취소하는 등 일정을 변경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많은 비와 강풍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야외활동 시 기상·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원룸 관리비에 월세 전가 못한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려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오는 6월께 완료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연합뉴스

내일 어린이날 신문 쉽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들어있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입니다.
-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2.02.10.).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 기조에 맞고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 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청년의사, 2023.4.21. 기사).
-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10명중 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간호조무사협회 '2021년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인력을 위한 상생법안입니다.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병원장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권익포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국제라이온스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신장애인권연대, 청년디딤돌, 인본사회연구소, 국제다문화연구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백년어서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대한수의사회여성위원회, 부산작가회, 부산인문연대, 부산민예총, 대전치과위생사협회, 울산숲사랑운동본부, 강원도여류작가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전북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생애말기돌봄연구소, (사)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등 1,300여 단체(무순)